

‘나주 SRF’ 환경성조사 업체 선정... 이달말 시험 가동

〈고형폐기물연료〉

조사 시행업체에 도화엔지니어링 발전시설 가동, 3개월간 진행 조사 범위,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전남 나주혁신도시 SRF(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가동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실시될 ‘환경영향성조사’를 위한 준비 절차와 발전소 시험가동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8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환경영향조사위원회가 복수의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도화엔지니어링이 환경영향조사 시행업체로 선정됐다.

난방공사는 오는 10일 도화엔지니어링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13일 환경영향성조사 착수보고회를 거쳐 30일부터 환경영향성조사 실시를 위한 발전소 시험가동 준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발전시설 가동은 시험가동 2개월,



나주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뉴스시스

본 가동 30일을 포함해 총 3개월 간 진행된다.

SRF연료 투입량은 발전소 가동 추이를 살펴가며 점차 늘리는 방식이며, 본 가동 30일 동안에는 1일 440여t 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조사 범위는 주민수용성 조

사 범위와 같은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이며, 측정은 총 9개 지점에서 이뤄진다.

측정 횟수는 SRF 발전시설 가동 전 1회, 가동 중 2회 이뤄지며, 가동 중 1회 측정지점은 9개 지점 중 4개 지점을 5km 이내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조사항목은 환경영향조사는 일반대기 7개·유해대기 10개 등 대기분야 17개 항목과 악취 10개 항목, 고형연료 성분 7개 항목, 소음 3개 지점, 굴뚝 오염물질 19개 항목 등을 SRF발전시설 가동 전과 가동 중 각 1회씩 측정한다.

이 중 대기오염물질 17개 항목에 한해 가동 중 1회 추가 측정하기로 하고, SRF발전시설 가동 전 굴뚝오염물질 19개 항목은 측정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SRF 발전시설 가동 기간 중에 주민 10명 이상이 집단 질환(호흡기질환·피부질환 등)을 호소할 것에 대비해 5인으로 구성된 ‘보건분야 검증단’도 운영된다.

검증단은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소견서를 첨부해 나주시 보건소에 접수하는 업무 등을 전담한다.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환경영향조사에 이어

‘주민수용성조사’(주민직접투표+공론화방식) 실시를 위해 이달 중순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말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발전소 연료가 기존 SRF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방식으로 100% 변경 결정될 경우에 대비한 ‘손실보존방안 기본안’ 마련을 위한 실무대책반회의도 이달 말 열린다.

민관협력거버넌스는 오는 2월 초에 ‘제17차 거버넌스 위원회’ 회의를 열고 환경영향조사 추진상황과 주민수용성조사 실무위원 구성안, 손실보존방안 실무대책반 구성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SRF갈등 해결의 분수령이 될 주민 직접투표 방식이 포함될 수용성 조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2개월 전후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6월 이후에나 공론화조사와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동네방네

김천시

“금연성공 도와드려요”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들의 편의제공과 금연성공율을 높이고자 오는 2월 21일 까지 시청 민원실에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주 5일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4시까지 민원실에서 운영되는에서는 금연을 원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연상담사가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연서비스로는 금연등록, 니코틴 의존도 검사, 체내 일산화탄소 측정으로 금연보조제, 행동 강화물품 등이 있



김천시

다. 한방 금연침 시술과 치료에서는 치주검사 및 구강상담을 통해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부산상의, 지역현안위해 자문위 열고 ‘한목소리’

국가균형 발전 등 5개 분야 정책 과제 과제집 발간

부산상공계가 21대 총선을 맞아 지역 경제 활력을 되찾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

부산상공회의소는 8일 21대 총선 공약 정책과제집 발간사업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분야별 정책과제를 점검했다.

부산상의는 국가 균형 발전, 미래 전략산업, 4차 산업혁명, 동북아 해양수도, 관광·마이스 등 5개 분야에서 23명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과제 선정작업을 벌여왔다.

먼저 국가균형발전분야에서는 24시간 관문공항 및 공항복합도시 건설, KTX 남해선 신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신차사 신규 설립,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7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전략산업 분야로는 신공항 연계 항공 MRO 산업단지 구축, 선박 재제조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시티 시범사업 등 6개 과제를 선정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스마트시티 혁신 플랫폼 개발, 서비스 연구개발센터 설립,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등 7개 과제를 추진한다. 동북아 해양수도 분야는 수소에너지 구축 실증사업, 스마트 물류 기반 복합물류지원센터 설립, 부산신항 대형 수리조선단지 개발,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체계 구축 등 9개 정책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부산=최인락 기자 remark@

광주시민이 뽑은 우선 사업 ‘광주형 일자리 정착’ 31%

광주사회조사, 환경 등 7개부문 조사 미래전략산업 육성, 특화산업 육성 순 좋은 일자리 창출, 중점 추진해야 61%

광주시민들은 광주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으로 광주형 일자리 정착과 발전을 꼽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표본 4905가구 내 만 15세 이상 시민 91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 광주사회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광주사회조사는 시민 삶의 질과 주관적 의식을 조사해 사회적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 복지, 문화·여가, 안전, 사회참여, 노동, 광주시 특성조사 등 7개 부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광주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 중 가장 많이 꼽은 사업은 31.4%가 응답한 광주형일자리 정착 및 발전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공지능(AI)·정보통신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27.6%), 에너지 신산업 등 특화산업육성(14.1%),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관광 명소화(9.9%) 순이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61%)에 과반수가 넘게 응답했고, 한전을 활용한 에너지 밸리 조성(13.4%)이 뒤를 이었다.

광주시가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산업으로는 친환경 자동차산업(49%)이 가장 높았고, 에너지 및 수소산업(14.1%), 문화콘텐츠 및 관광산업(10.9%), 의료 및 헬스케어산업(10.3%) 순이었다.

2019년 성과로는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설립(50.4%)을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꼽았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25.5%), 도시철도 2호선



광주시청

건설 확정(13.5%)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분야에서 시민들의 거주지 환경분야(대기·수질·토양·소음·녹지환경)에 대한 체감도는 보통(45.6%), 좋음(만족)(30.7%)으로 응답해 2년 전 응답한 보통(44.9%), 좋음(만족)(35.9%)과 비교할 때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분야에서 앞으로 늘려야 할 공공시설은 공영주차시설(22.8%), 공원·녹지산책로(18.8%), 보건의료시설(14.6%), 사회복지시설(11.6%) 순으로 나타났다.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는 고용(취업)지원서비스(28.5%), 보건의료·건강관리서비스(20.8%), 맞벌이가구 자녀양육지원(13.1%), 여가문화 향유 지원서비스(12.1%) 순으로 답변했다.

60세 이상 시민들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67.5%), 자녀 및 친척지원(16.3%), 정부 및 사회단체보조(15.4%)로 응답했다.

문화와 여가생활분야에서 지난 1년간 해외여행 경험은 있다가 29.1%로 나타났다. 여행목적은 관광(90.7%), 가사(12.2%), 업무(7.2%) 순으로 대부분 관광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경험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인천 연수구, 마을 만들기에 1.2억 투입

인천 연수구는 ‘2020년 연수구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은 마을 고유의 특성을 살려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구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분야는 형성지원, 활동지원, 서

로잇기(연계지원) 및 우리사이틀터(공간지원)의 총 4개 분야로 분야별 최대 1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우리 사이틀터’(공간지원) 분야는 올해 처음 공모하는 분야로 마을공동체가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회의실·공유부엌·공방·카페·작은도서관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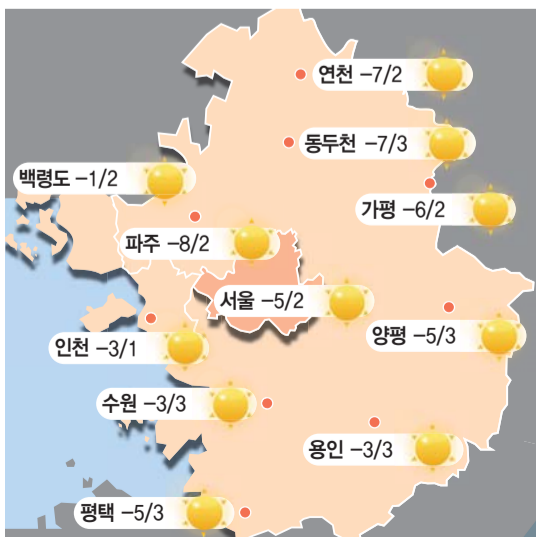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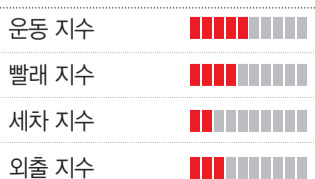
1월

9일 (木)

음력 : 12월 15일

수도권 날씨

-5 ~ 2°C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